

樹默 秦弘燮博士

樹默 秦弘燮博士는 一九一八年三月八日 開城에서 秦柄建氏와 金惠敬女史의 長男으로 出生하시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學問에 뛰어나시며 온 후하고 寡默하셨던 先生은 開城公立商業學校(一九三一—三六)를 卒業하신 후 日本明治大學豫科(一九三六—三八)를 거쳐 明治大學政經學部(一九三八—四二)를 마치셨다. 一九三九年에 好壽敦學園과 깊은 因緣을 맺으셨으니 당시 가열해가던 日帝戰爭下에서 好壽敦學園이 門을 닫게 되는 不幸을 보시자 二〇代의 青年으로서 先生은 곧은 각오하에 임친단 私財를 기울여 好壽敦學園의 中興에 至大한 功을 세우시게 되었으며, 一·四후퇴후 大田에서 好壽敦의 기틀이 다시 마련되어 그 오랜 傳統과 歷史가 오늘에 이르게 된 배후에는 조금도 私心이 없으셨던 先生의 功勞가 컸었다. 國立博物館 開城分館長(一九四七—五二)이 되실때 까지 好壽敦에서 많은 弟子를 길러내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財團法人 好壽敦學園 理事를 歷任하시면서 묵묵히 好壽敦의 發展을 지켜보고 계시다.

일찍기 先生은 韓國美術史 研究에 큰 뜻을 두시어平生을 우리의 옛 文化를 究明하고자 수시로 全國을 踏查하시면서 工藝、彫刻、建築等 수십편에 달하는 많은 글을 쓰셨다. 특히 國立博物館 慶州分館長(一九五二—六一)으로 계셨던 一〇餘年間的 慶州生活는 新羅文化에 대한 뚜렷한 確信을 얻으시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新羅周邊文化와의 연관성에 깊은 關心을 두시고 수차례 걸친 安東地區의 學術調査 및 發掘은 韓國美術史 研究에 새로운 方向을 提示해 주시었고 三國問의 文化交流를 立證하시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女性教育에 關心이 깊은 先生은 一九六三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梨花女大에서 教鞭을 잡으시는 한편 梨大博物館을 맡으셔 大學博物館의 기틀을 鞏固히 하시고 第一의 大學博物館으로 키우기까지 先生의 노력과 손길이 안닿은 곳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考古學、韓國美術史、東洋美術史等 講義와 踏查를 통하여 學生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해마다 博物館을 利用하는 美術史專功學生들이 끊이지 않아 우리나라 傳統文化에 대한 學生들의 認識을 높혀 주셨다. 學校生活를 떠나고서도 몇몇 弟子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 先生을 모시고 親睦을 도모하는 동시에 계속적인 硏究와 卒業論文發表會等을 통하여 긴밀한 紐帶를 맺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平素 藥酒를 좋아하시며 素朴하고 物慾이 없으신 先生을 學校로 혹은 맥으로 찾아뵙는 弟子들의 精誠은 정녕 부모님과 자식간의 情이라고나 할까. 先生의 家庭으로는 뒤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夫人 禹順愛女史와 舍息 華秀君이 있다.

主要한 著書 및 論文 그리고 其他 事項은 대략 다음에 紹介하는 바와 같다.

公職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一九六一)

文化財管理局 文化財課長(一九六三—六三)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委員(一九六三—七二)(一九七三—七六)

韓國美術史學會 代表(一九六八—七〇)

教職

韓國大學博物館協會會長(一九七〇—七三)
檀國大學校 出講

西江大學校 出講

서울大學校 出講

成均館大學校 出講

成信女子師範大學 出講

淑明女子大學校 出講

崇田大學校 出講

延世大學校 出講

著書

慶州의 古蹟(悅話堂、一九七五)

A Short History of Korea Art(共著、一九七〇)

慶州文化財散步(日文、學生社、一九七三)

韓國의 佛像(一志社、一九七六)

三國時代의 美術文化(同和出版公社、一九七六)

고려청자(번역、三星文化財團、一九七七)

청자와 백자(세종대왕기념사업회、一九七四)

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公社、一九七四)

土器 土偶 瓦埴(第三卷)

金屬工藝(第八卷)

日本美術史(翻譯、悅話堂近刊)

古蹟調查報告書

安東(一九七五、七)

造塔洞古墳發掘調查報告(一九七五、七)

中佳邱洞古墳發掘調查報告(一九七七、二)

論文

三國時代 高句麗美術이 百濟、新羅에 끼친 영향(學位論文、一九七四、二)

南山 新城碑의 綜合的 考察(歷史學報 第二六集、一九六五、二)

其外 多數

姜 敬 淑